

## 4/4분기 기업자금사정지수(FBSI) 조사

弘報室 : (02)  
6050-3602~5

\* 이 자료는 **10/10(木)자 夕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0/10(木) 06:00부터**

※ 문의 : 금융세제팀 권혁부 팀장(02-6050-3891), 유성필 대리(02-6050-3894)

### 4Q FBSI '92' ... 기업 자금사정 양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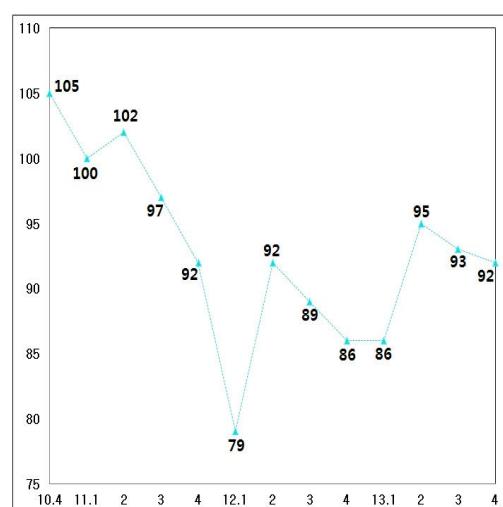
- 대한상의 '기업자금사정지수' 조사 ... 1Q '86' → 2Q '95' → 3Q '93' → 4Q '92'
- 일부 대기업 유동성 위기 겪는 가운데 대기업은 '회복 전환'(98→101), 中企는 '자금난 지속'(92→91)
- 업종별 전망 : 정보통신(103), 석유·화학(101) '맑음' ... 건설(87), 조선·해운(91), 석유·의류(92) '흐림'

4분기 기업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림> 최근 기업자금사정지수 추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전국 500개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4분기 기업자금사정지수'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전망치가 기준치(100)를 밑도는 '92'로 집계되어 2011년 3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자금사정지수(FBSI : Business Survey Index on corporate Finance)는 기업들의 자금흐름을 수치화(0~200)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전 분기보다 해당 분기의 자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지난 8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482조원에 달해 지난해 8월 기준 459조원에 비해 23조원 이상 자금 공급이 확대되었지만 금융기관이 담보나 우량대출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며 영세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자금 공급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자금 수요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규모별로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업(101)은 4분기 자금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매출 부진의 영향이 크고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91)은 자금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 현금수입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현금흐름 보상 비율이 지난 2분기 64.3%로 전년 동기(53.8%) 대비 10%p 상승할 정도로 자금흐름이 양호하고 주식, 유보금 활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면서 “반면 중소기업은 낮은 신용도 때문에 주식, 회사채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미미하여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소기업의 일반 회사채 발행실적은 3건에 2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이 37.5% 줄어든 상황이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103)과 ‘석유·화학’(101)이 기준치를 웃돌며 자금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반면, ‘기계·금속’(97), ‘자동차·부품’(96), ‘철강’(94), ‘섬유·의류’(92), ‘조선·해운’(91) 등은 기준치를 하회했다.

상의는 “정보·통신 업종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IT제품 수요 확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안정으로, 석유·화학 업종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회복과 원재료 가격의 안정화로 자금사정이 나아질 전망”이라며 “철강 업종은 수요 부진과 글로벌 철강시장 공급 과잉에 따른 철강가격 하락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4분기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업들에게 자금사정이 악화된 이유를 묻자, ‘매출 감소(45%)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원가 상승(24.7%), ‘금융기관 대출 곤란’(15.6%), ‘금융비용 부담 증가’(8.3%), ‘시설·기술 개발 투자 확대’(4.3%), ‘신규 고용 확대’(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표1> 규모·업종별 FBSI

항목	2013년 3/4분기 전망	2013년 4/4분기 전망
전체	93	92
규모	대기업	101
	중소기업	91
업태	제조업	96
	비제조업	90
업종	기계·금속	97
	섬유·의류	92
	정보·통신	103
	조선·해운	91
	석유·화학	101
	건설	87
	자동차·부품	96
	철강	94

‘자금조달 시장상황’은 전망치가 ‘96’으로 집계되어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주식’(101), ‘은행’(100)을 제외한 ‘제2금융권’(98), ‘기업어음’(97), ‘회사채’(96)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상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고 웅진그룹, STX그룹, 동양그룹 사태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회사채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 기업의 회사채 발행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조선[해운] 등 일부 업종에서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표2> 항목별 기업자금사정지수(FBSI) 전망

	2013년 3/4분기 전망	2013년 4/4분기 전망
1. 자금조달 시장상황	95	96
1-1. 회사채	94	96
1-2. 기업어음	97	97
1-3. 주식	96	101
1-4. 은행	98	100
1-5. 제2금융권	97	98
2. 자금수요 상황	103	106
2-1. 시설자금	104	107
2-2. 운전자금	103	102
2-3. 부채상환자금	100	103

내년도 전반적인 자금사정 전망에 대해서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41.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다소 개선될 것’(26.8%), ‘다소 악화될 것’(18.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매우 악화’ 5.1%, ‘매우 개선’ 8.2% >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최근 내수 출하 증가, 투자지표 개선 등 경기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자생력이 약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매출이 늘어도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기업 역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3. 9/9(월)~9/23(월)
- 조사대상 : 전국 500개사
  - 규모 분포율 : 대기업 75개사(15.0%), 중소기업 425개사(85.0%)
  - 업종 분포율 : 제조업 400개사(80.0%), 비제조업 100개사(20.0%)
- 기업 자금사정지수(FBSI) 계산방식
  - 기업의 자금사정에 대해 ‘매우 호전’ 200점, ‘호전’ 150점, ‘보통’ 100점, ‘악화’ 50점, ‘매우악화’ 0점으로 하여 합을 구한 후 전체 응답자수로 나눔
  - $$FBSI = \frac{\text{매우호전} + \text{호전} + \text{보통} + \text{악화} + \text{매우악화}}{\text{전체응답자수}}$$